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둘 아닌 지혜로운 마음으로 마음 근본에다 딱 맡겨 놓고 지켜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이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의향이 있다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세련된 옷을 착 입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세련된 옷이 생겼어요. 그게 새로이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벗고 그것을 좀 입어 봐야겠다 이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와 같습니다.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고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금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생산이 돼서 다시 새로운, 즉 말하자면 유행되는 옷을 입고 다시 나오죠. 그런데 왜 그 구식의,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게 떨어질까 봐, 그거 벗겨질까 봐 그냥 애씁니까? 내 마음대로 유행하는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또 오래 살게 되는 거죠. 허허허….

내가 길을 걷거나 절 안에 앉아 있거나 하더라도 한숨이 훅 그냥 맥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개가 뚝 떨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먹고 안 먹고 또는 죽고 살고,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자기가 집합소가 돼 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혼자 먹지도 않는 거를 혼자 먹는다고 하고 혼자 줬다고 하고 혼자 산다고 하니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혼자 먹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너 혼자 먹었으니까 혼자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일일이 걸려도 누가 손 한번 대주지 않아요. 한마음으로 도와주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까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경에 이르러도, 어떻게 죽게 돼도 손을 안 대 준단 말입니다. '너 혼자라고 만날 떠드는데, 내가 이렇게 만날 작용을 해 주고 이래도 너 혼자라고 그러는데 혼자 잘해 봐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도 에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남이 미워서 속에다가만 넣고 그냥 말로는 그런 대로 해 나가곤 있지만 속에다가 '조놈 두고 보자.' 하면요, 그쪽에서도 역시 '너 요놈, 두고 보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둘이 아닌데, 뭐. 예전에 몰랐을 때의 내 모습과 같지. 둘이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쪽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외려 회개를 하고 "아휴, 내가 전자에 자네한테 참 잘못했어. 참 미안해. 살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 하고 마음이 아주 더 측은하고 참답게 진실한 친구로서 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가족끼리도 그렇지 못하게끔 울그락불그락하고 야단들이니 어떻게 화목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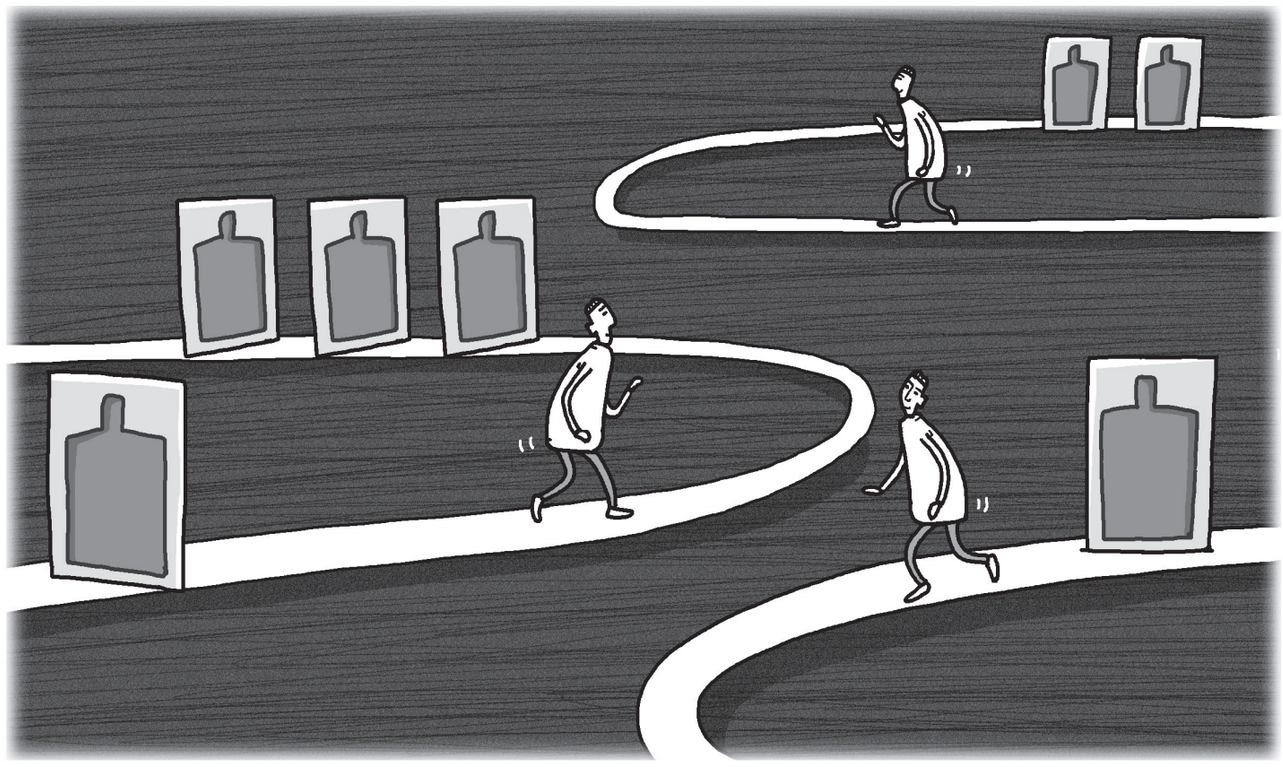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디만 더 하고 질문받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항상 내가 그 말은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탓으로 돌리고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됩니다. 이런 예가 있었죠. 수원에 어느 삼 형제가 사는데 밭 하나라도 그냥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음식을 했어도 하나 주지도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서로 패고 들고 싸우고, 참 어렵게 살았더랍니다. 근데 어떡하다가 선원에 오게 됐어요. 선원에 오게 됐는데, 떡 보니까 말입니다, 나한테 착 오는 게 뭐냐 하면 '저렇게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천방지축들이니 안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네들, 자식을 기르고 살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몇 남매나 뒀어?" 그러니까 오 남매를 뒀고 뭐, 삼 남매를 뒀고 모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요다음에 죽을 때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으레 자식들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럼 자식들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면 당신네 부모들은 어떻게 섬겼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고 고개를 푸떡 떨어뜨리더군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양면을 다 얘기를 해 줬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에게 방바닥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보지도 않고 불을 때서 엉덩이가 다 타서 죽게 만들고, 죽고 나서도 그냥 깔고 있던 그걸로 그대로 두루루 말아서 갖다가 넣는 게 어딨어?" 그랬더니 고개를 푹 떨어뜨리면서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는 거죠. "아,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알지 당신이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어요. 그때부터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 삼 형제는 아주, 모두오 남매인데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다 잘 지내던지 정말이지 잘 살게 됐더랍니다. 외국도 가게 되고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지간이나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배척을 해서 버리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거를 그 안에 넣고 '응, 모자랄 때 내 모습과 같아. 그러니까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저절로 잘될 것이고 저절로 복덕이 아니라 공덕을 받게 되고, 저절로 집안이 아주 유하고 광명이 스스로 들어서 하나도 애고가 없이 잘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만나면 사랑하고 만나면 즐겁게 웃고 말입니다.

자식들도 마음과 마음으로 붙들고, 남편 부인도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붙들어야지 몸을 붙들려고 그러고 말로 해서 붙들려고 그런다면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든다면 육체는 저절로 붙들어지죠, 허허허. 그 도리가 아주 묘한 도리인 줄 아셔야 될 겁니다.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가 붙들어지고 육체를 붙들어야 화목도 붙들어진다고요.

우리가 몸을 붙들려고 "예이, 이놈의 개새끼, 소새끼!" 하고, 하하하, "너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 고생한…." 아, 고생을 했으면 같이 고생을 했지 뭐, 혼자만 고생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끼리끼리 모여 있죠?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있죠? 그와 같이 여러분도 끼리끼리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났으니 그저 '한마음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럽게 해 주고, 부드러운 말 해 주고, 부드럽고 정답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러한 마음으로써 사랑하고 위로해 준다면 너무나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될 겁니다, 아마.

부처님 법이 경전에만 있고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 법도 없을 거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법도 있는 겁니다. 우리네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 자체가, 바로 살림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이자 도입니다. 도도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물리가 터지고 지혜

☞ 22면으로 계속

